日日新 정신으로 大同化합시다

대한불교금강종 종정 송천 스님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大同化 世界化 眞幸福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하루가 새로워지려면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 화합하면 세계 만민이 고루 행복하리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지혜로운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을 맞이하고 모두 화합하여 복덕을 두루 세계 만방에 베풀면 어찌 행복하지 않고 부귀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분열과 불화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화합합시다. 신년 푸른 뱀의 해가 되어 지혜롭게 난관을 극복하는 을사년이 되어, 일일신(日日新)의 정신으로 대동화(大同化)합시다.

서로의 빛되는 새해 됩시다

대한불교해인종 종정 혜지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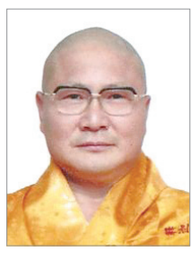


2025년은 해인종이 창종(創宗)의 가르침을 더욱 널리 펼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을 벗어나고 행복에 이르도록 정진하며, 불교적 가치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불심(佛心)을 더욱 공고히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빛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를 믿고 실천하며, 모두가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하심의 공덕 주인공이 되라

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스님



愚心不學增橋慢
癡義無修長我人
空腹高心如餓虎
無知放逸似顚猿

미련해서 배우지 않으면 교만심만 늘어나고 어리석어서 닦지 않으면 잘난 척만 하게 된다. 속은 비고 마음만 높으면 굶주린 호랑이와 같고 아는 것 없어 놀기만 하면 넘어진 원숭이와 같다. 을사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가 어리석은 줄 알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어리석으면도 지혜롭다고 말하면 그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을사년에는 우리 모두가 불성으로 소원성취 바랍니다.

연기법 깨닫는 새아침 맞자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능허 혜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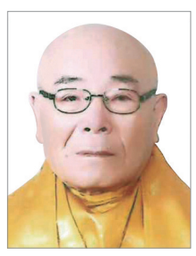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과 실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각자의 마음 속에 더욱 깊은 정진과 자비심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모든 존재는 연기(緣起)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큰 울림을 줍니다. 서로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화합을 이루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정성을 다하며, 마음 속의 부처님을 되새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보 하며 살아갑시다

금강조계종 종정 수암 스님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온 국민과 더불어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서로 양보하며 또한 하루에도 한량없이 찾아오는 망념에 사로잡혀 무시습숙(無始習熟)한 숙업의 선율은 여지없고 마음을 수시로 흔들어 놓아도 언제 어디로 갈곳하나 모르고 살아가는 뜬구름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새해에는 허망된 욕망과 아집을 버리고 서로 양보하면서 복덕을 쌓아 복되고 희망찬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행복으로 채웁시다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늘 일상에서 깨달음을 찾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다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겨내신 모든 분께 감사와 찬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생활 속에서 불교의 정신을 더욱 깊이 실천하며 나아가길 서원합니다.

새해에는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빛나게 하고, 내 자신과 이웃, 더 나아가 세상을 행복으로 채우는 한 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세월 따라 인연 따라 갈 것을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세월 따라 왔다가 세월 따라 갈 것이, 밝은 달은 비추고 맑은 바람은 떨치도다.

비록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지만 봄이 오면 옛날을 의지해 초목이 스스로 일어 나도다. 구름이 간다가 구름이 올 것이 허공에는 오고감 자취도 없도다.

묵은 해는 가고 새해온다.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원하는 바 모두 이루어 행복한 한 해가 되소서.

신년을 맞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入海求寶 보물을 구하다

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나라의 살림도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하여 여당야당 구별말고 균등하게 평등심으로 한 국민의 대변자로써 서로 배려와 양보로 소통하는 것만이, 혼란 속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질투심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질투심이 생길 때, 어떻게 행동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질투의 불길은 파괴하고 약탈하려는 수단으로 쓰면 더욱 거세질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자세와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도 더욱 약해집니다. 질투심을 끊어버리는 훌륭한 방법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음 속 자비와 지혜 씨앗 심자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세계요, 세계가 곧 마음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가 곧 외부의 조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고, 일상 속에서 이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삶의 매 순간이 수행의 시간이 되고, 각자의 자리가 깨달음의 도량이 되길 발원합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부처님의 자비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법은 이 순간 마음 속에

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
총무원장 성보 스님



2025년 새해는 더욱 정진하고, 불교적 가치를 현대사회에 널리 구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특히 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는 승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며, 새해에는 각자의 삶 속에서 더욱 깊은 정진과 자비의 실천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발원합니다.

계율 청정의 한해로 삼자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스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부처님의 계율을 중심으로 수행하며, 삶 속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계율은 단순한 규칙을 넘어, 우리 마음을 바로 세우고 삶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빛과 같습니다.

새해를 맞아 율사조계종은 더욱 깊은 수행과 실천으로 불교적 가치를 사회에 구현하고, 모든 중생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율과 수행을 통해 모든 중생이 깨달음에 이르고, 평화와 조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불교 전통 전승 힘쏟아야

한국전통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봉 스님



존경하는 불자님 여러분, 새해는 각자의 마음 속 부처님을 더 깊이 되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매 순간을 깨어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계율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 불자들의 원력이 중요할 때입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발원하며,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정성을 다하며, 마음 속의 부처님을 되새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금정산 산마루의 금빛 우물, 하늘에서 내려온 금빛 물고기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여산 정여
주 지 산해 정오
신도회장 이윤희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종무소 051-508-3122 원주실 051-508-3636
선문회관 051-508-0102 불교대학 051-866-7277
템플스테이 051-508-5726





